

# 눈높이 원자력 홍보와 체계적 에너지 교육을 통해 원자력 이해 기반 확충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구 환경 문제와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의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은 원자력뿐이라는 인식이 구미를 비롯하여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15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을 준비중이며, 그동안 반(反)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던 영국도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과 인도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20년 내에 각각 30기, 15기 정도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자력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국내 원자력산업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민 경제에 기여토록 하며,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중심 에너지 산

업으로 육성한다는 「제3차 원자력 진흥종합계획」(2007~2016)을 의결했다.

이같은 야심찬 계획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의 지속적 향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의 고도화 및 균형 발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장기전력수급계획상의 원자력 점유율 확대 반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건립, 사용후핵연료 처분 공론화, 장기적으로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 건립 등 국민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원자력 산업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반면 원자력 사업 추진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 및 시민 환경 단체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원자력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으로서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이해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신발판을 조여매고 있다.

'생활 속에 원자력문화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신뢰' '커뮤니케이션' '창의'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미래 '차세대 에너지 교육 중심 기관' 및 '글로벌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이 되기 위한 역동적인 전략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전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정한 2007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경영 목표는 '사업의 전문화 및 고객 감동 실현'.

이를 달성하기 위해 ▲ 핵심 전략 사업의 육성 ▲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전문 역량 제고 ▲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지속 ▲ 사업 평가 및 환류 시스템 확립 등 5대 전략 목표와 15개 이행 과제를 선정, 연

초부터 힘찬 추진의 시동을 걸었다.

**원자력계 현안에 대한 국민 수용성 향상**

올해는 원자력 이용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것이다.

시민·환경 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場)을 국가에너지 위원회에 설치, 실용적인 논의를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해외에서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하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학계 및 연구계의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하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기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설계 수명 30년이 끝나는 고리 1호기를 비롯, 앞으로 계속 될 원전의 계속 운전 역시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이해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적기 건설과 차질 없는 신규 원전 건설 등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시급하다.

국민들이 보내는 믿음과 신뢰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게 되므로, 이들 매체를 통해 객관적인 원자력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다.

특히 메시지 전달력이 큰 공중파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원자력이 공기, 물 등과 같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킬 것이다.

또한 계기성, 이슈성 현안에 대한 메스컴의 심층 취재 보도를 통해 여론을 선도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차세대가 선호하는 위성 방송, VOD, 디지털 TV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홍보 책자, 팸플릿, 만화, 동화 등 각종 간행물에 수록되는 정보를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원자력의 친근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나갈 것이다.

**눈높이 원자력 교육의 강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에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는 최우선 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중요성과 필요성,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생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교육을 통해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우수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을 개발,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균형감 있게 전파해 나간다면 국가 에너지 자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 기반을 자연스럽게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여론 주도층, 교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설립 초기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원자력 현장 교육 사업을 재단의 대표적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코자 한다.

엄정하고 투명한 대상 선정, 수준 높은 인솔 서비스,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강의 내용, 체계적 효과 분석 시스템 확보 등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차세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고 성장기 청소년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세대 교육 사업을 더욱 강화해나



에너지체험전시관 '행복한 I' 내부 전경

갈 것이다.

높이 원자력 교육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원자력시범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스승의 날을 전후해 시행하는 원자력 1일 교사 활동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며, 전국의 공무원교육원, 평생교육원, 각종 사회 단체 등에 원자력 강좌를 개설, 원자력 교육의 파급 효과를 높여 나가고자 한다.

교육 현장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올해는 원자력 이해 기초 과정 직무 연수 대상을 일반 교사에게 전체 교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교육 내용도 기초 과정에서 전문 과정까지 심화하며, 교육 이수자들을 잠재적 원자력 후원군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이교자 한다.

아울러 초·중·고 교과서의 원자력 관련 기술 내용을 조사하여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 집필진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원자력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교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올해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영재식 체험 교육을 통해 원자력 인재를 양성하는 「청소년 원자력교실」, 원전 지역 청소년들의 재능과 감성을 원자력과 이어주는 「청소년 문예대전」 등과 함께, 재단의 대표적 청소년 대상 문화 사업인 「행복한 I」를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행복한 I」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해오던 원자력관련 공모전, 캠프, 뮤지컬, 사진전, 음악회 등 차세대 대상 문화 사업을 통합하여 「행복한 I 여름 축제」라는 브랜드 사업으로 런칭한 것으로서 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재단의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 「행복한 I」는 원자력 공모전을 비롯해 뮤지컬, 창작 동요 대회, 사진 콘테스트, 행복한 I 홍보대사 선정 등 더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전시 홍보 운영 시스템 확립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의 양식' 또는 '삶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형성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생활의 습관과 가치가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문화' 또한 그렇게 형성된다고 본다.

첨단 과학 기술의 산물인 원자력을 생활 문화로 엮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과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차세대에게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교육을 '생활화'해서 에너지의 소중함과 에너지 확보의 어려움을 올바르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재단 사옥 1층에 에너지 체험관 「행복한 I」설치를 완료하고, 올해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종합 에너지 체험 전시관인 「행복한 I」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활용해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작동해보면서 관람객 스스로 에너지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즐거운 공놀이’, ‘내 몸의 열에너지’, ‘바람이 쐤쐤’, ‘물줄기가 싸야’, ‘햇빛이 쨍쨍’, ‘파도가 찰쭈찰쭈’, ‘내가 만드는 원자력’, ‘방사선 동물병원’, ‘달려라 에너지’ 등 20여 가지의 다채롭고 재미있는 전시물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시관 관람을 마친 관람객들은 2층 교육실에서 ‘신나는 과학실험실’ 등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엄마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아동인형극’, ‘명사 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는 학습을 겸한 놀이터로, 일반인에게는 친근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재단은 앞으로도 전시·체험물을 활용한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원자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전기에너지관, 서울시 교육과학연구

원 원자력홍보관 및 국립서울과학관 원자력관 등 상설 전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부와 에너지 유관기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에너지 순회 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 체험전시관 「원자력문화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 IT 홍보 콘텐츠 및 고객 접점 확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IT 홍보 사업은 웹 2.0 시대를 맞아 누리꾼의 블루슈머화, RSS 시스템 도입, UCC 사이트 활성화 등 최신의 IT 흐름에 맞춰 진행해 나갈 것이다.

새해에도 “원자력계 랭킹 1위 포털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홈페이지(www.knef.or.kr)의 기능을 더욱 강화, 사이트의 신뢰도 및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메뉴를 더욱 활성화하여 누리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다.

최신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UCC 사이트 및 주요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 좀 더 쉽게 원자력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고, ‘네이버’, ‘파란’ 등 다양한 포털 사이트와 제휴하여 원자력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패밀리 사이트인 ‘원자력지식발전소’와 에너지체험관 ‘행복한 I’ 사이트를 활용하여 학교 연계 프로모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꾸러기기자단과 함께 UCC 제작 등 눈높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원자력 교육용 풀 3D 애니메이션을 추가 제작하여 방송, 극장, 인터넷을 통해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은 2004년에 주인공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찾아가는 모험을 그린 「행복에너지, 원자력」을 제작하여 2005 대한민국 기업커뮤니케이션 대상, 2006년 국제비즈니스대상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인 「Stevie Awards」를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작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다 역동적이고 알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하반기부터 차세대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RSS(Rich Site Summary)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누리꾼은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대에 자동으로 제공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재단은 원자력 정보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신청자 23만여명에게 발송하고 있다.

올해에는 정보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보를 주제별로 더욱 알기 쉽게 정렬하여 수신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재단은 지난해 원자력 및 재단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원자력 정보 DB’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원자력



차세대 대상 원자력 문화 행사 '행복한 아이 여름 축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자력 정보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제 교류 활성화 및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하여 세계 원자력 분야의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 수집과 홍보 사례 연구, 인적 교류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한·일 원자력정보 교류회 개최 정례화 및 한·프 정보 교류회를 활성화해 나가고, 미국 NEI(Nuclear

Energy Institute)와의 협력 협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원자력 시설 시찰 사업의 국내 공식 창구로서 계속 운전 및 사용후연료 관련 시설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설 위주의 현장 교육을 통해 정책 결정층 및 여론 주도층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기반을 넓히는 일은 원자력 사업이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사업자가 아닌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원자력 찬·반 세력의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고, NGO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난해 「원자력 산·학·연 심포지엄-바람직한 에너지 정책과 국민 이해」, 「에너지안보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도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과 대학생 대토론회 등을 개최, 원자력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는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위험성에 대한 과장된 정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지역 주민 의식 조사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여론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원자력 정책 및 홍보 계획의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재단은 정기 및 간이 여론 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홍보 사업 평가, 모니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이해 활동에 대한 반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홍보 활동 및 홍보 전략 수립에 활용할 것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 문화 창달 기관으로서,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에 대해 바르게 알리는 나침반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